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김용선 주무관 윤현선	042-481-5168 042-481-5154
 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	2017년 1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월 30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 꾸준히 증가

-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 지원 필요 -
- 특허청,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사개요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55.6%(’15) → 60.2%(’16))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조사 기간) ‘16. 8. 8. ~ 11. 7.(3개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
- (조사 대상) 지식재산 활동실적이 있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 산업재산권 2건 이상 출원(’13~’14년) 및 1건 이상 등록(’11~’15년)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중 추출 및 조사
 - 모집단: 26,199개(기업 25,947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52개)
 - 표 본: 4,667개(기업 4,415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52개)
 - 최종응답 : 1,408개(기업 1,210개, 대학·공공연구기관: 198개)

-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증가하였다(대기업:77.7%(’15)→91.7%(’16), 중견기업:71.6%(’15)→ 86.1%(’16)).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46.2%('15)→48.8%('16))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75.1%('15) → 72.9%('16)), 독립 부서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했다(독립부서 보유5.9%('15) → 8.2%('16), 전담인력: 20.6%('15) → 22.0%('16)). 이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이 지식재산의 분쟁증가와 활용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 지식재산 담당조직 : 법무/연구개발부서, 독립전담부서, 기타부서

-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소폭 감소하여(77.4%('15) → 75.3%('16)), 앞으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39.3%('15) → 40.1%('16))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 조사결과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비율은 60.2%로 전년도 대비 4.6%p 증가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비율(기업) : 55.6%('15) → 60.2%('16)

*대기업: 77.7%→91.7%, 중견기업: 71.6%→86.1%, 중소기업: 46.2%→48.8%

□ (기업의 인프라 보유)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독립 전담부서 보유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

* 지식재산 담당조직 : 법무/연구개발부서, 독립전담부서, 기타부서

○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016년 72.9%로 전년도 대비 2.2%p 감소하였으나,

※ 담당조직 보유 비율(기업) : 75.1%('15) → 72.9%('16)

○ 독립 전담부서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016년 8.2%로 전년도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역시 2016년 22.0%로 전년도 대비 1.4%p 증가

※ 독립전담부서로서 보유 비율(기업) : 5.9%('15) → 8.2%('16)

※ 전담인력 보유 비율(기업) : 20.6%('15) → 22.0%('16)

□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업화 비율은 증가

○ 기업의 보유 특허 대비 활용 비율은 2016년 75.3%로 2.1%p 감소한 반면, 사업화 비율은 2016년 57.8%로 0.5%p 증가

※ 특허의 활용 비율(기업) : 77.4%('15) → 75.3%('16)

※ 특허의 사업화 비율(기업) : 57.3%('15) → 57.8%('16)

□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비율 역시 증가

○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6년 40.1%로 전년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예비평가 수행 비율(기업) : 39.3%('15) → 40.1%('16)

- 산업재산권 출원 등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비율 역시 2016년 80.4%로 전년도 대비 9.2%p 증가
※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기업) : 71.2%('15) → 80.4%('16)

□ (대학·공공(연)의 인프라 보유)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증가

-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2016년 96.9%로 전년도 대비 0.8%p 증가, 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2016년 52.6%로 전년도 대비 1.4%p 증가한 것으로 조사
※ 담당조직 보유 비율(공공) : 96.1%('15) → 96.9%('16)
※ 전담인력 보유 비율(공공) : 51.2%('15) → 52.6%('16)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대학·공공(연)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6년 34.6%로 전년도 대비 1.7%p 증가
※ 특허의 활용 비율(공공) : 32.9%('15) → 34.6%('16)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비율은 2016년 63.8%로 전년도 대비 2.0%p 증가
※ 예비평가 수행 비율(공공) : 61.8%('15) → 63.8%('16)

활용계획

-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관계기관 및 부처에 배포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본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붙임 :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1부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16. 08. 08. ~ '16. 11. 07. (약 3개월)

□ 조사 내용 : 기업과 대학·공공(연)으로 구분하여 지식재산 인프라, 창출 및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 지식재산활동 조사항목 구성 >

구분	조사항목
▶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전담인력 현황, 관련 업무수행 현황 등
▶ 특허기반의 지식재산활동	선행특허(기술) 조사 활동,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현황 등
▶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실사 평가 수행 현황, 특허 활용 현황 등
▶ 지식재산 보호	예비평가 수행 현황,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현황 등

□ 조사 표본 설계

○ 모집단 설계 : 2016년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2건 이상('13~'14년) 출원 및 1건 이상('11~'15년) 등록한 26,199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

(단위: 개)

	모집단 크기	기업	대학 및 공공(연)
2007년	10,202	10,050	152
2008년	11,470	11,292	178
2009년	11,987	11,792	195
2010년	13,392	13,165	227
2011년	17,440	17,220	220
2012년	18,656	18,418	238
2013년	20,795	20,566	229
2014년	20,799	20,569	230
2015년	25,415	25,166	249
2016년	26,199	25,947	252

○ 표본집단 설계: 4,667개(기업 4,415개, 대학·공공연 252개)

- (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공통)와 업종(기업)을 기준으로 26개 집단으로 계층화하여 무작위 추출

▪ (전수조사) 기준연도 연평균 출원 10건 이상 또는 5년간 등록 100건 이상

▪ (표본조사) 기준연도 연평균 출원 10건 미만 그리고 5년간 등록 100건 미만

- (대학·공공연) 출원 및 등록건수에 관계없이 전수조사 실시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2.82

□ 응답률 : 47.6% (기업 44.3%, 대학·공공(연) 86.1%)

2. 2016년도 주요 조사결과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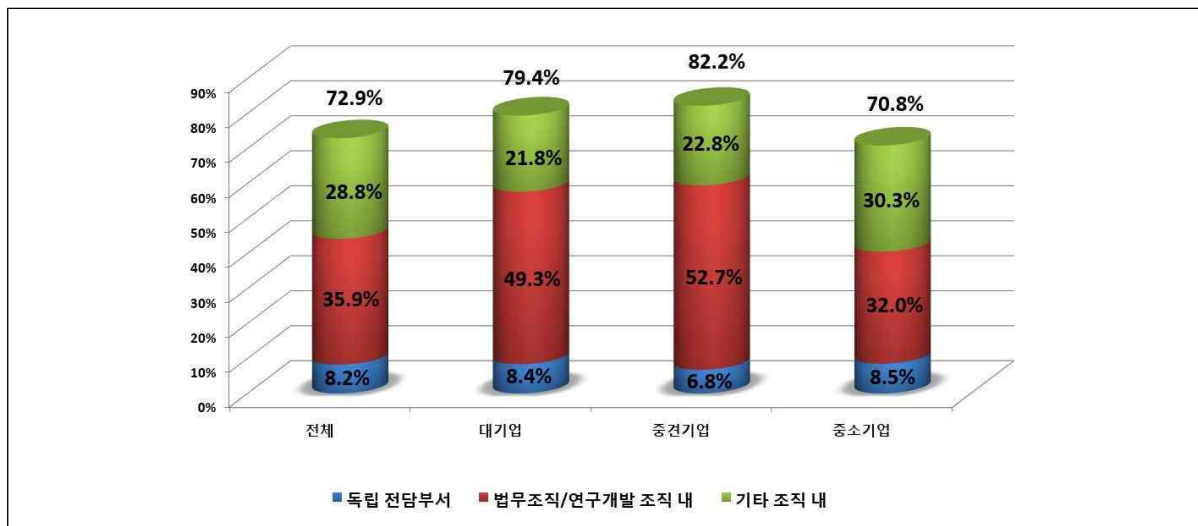
□ 기업의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72.9%로 전년대비 2.2%p 감소, 독립 전담부서로서 보유 비율은 8.2%로 전년대비 2.3%p 증가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기업 비율: 75.1%('15년) → 72.9%('16년)

※ 독립 전담부서로서 보유 비율: 5.9%('15년) → 8.2%('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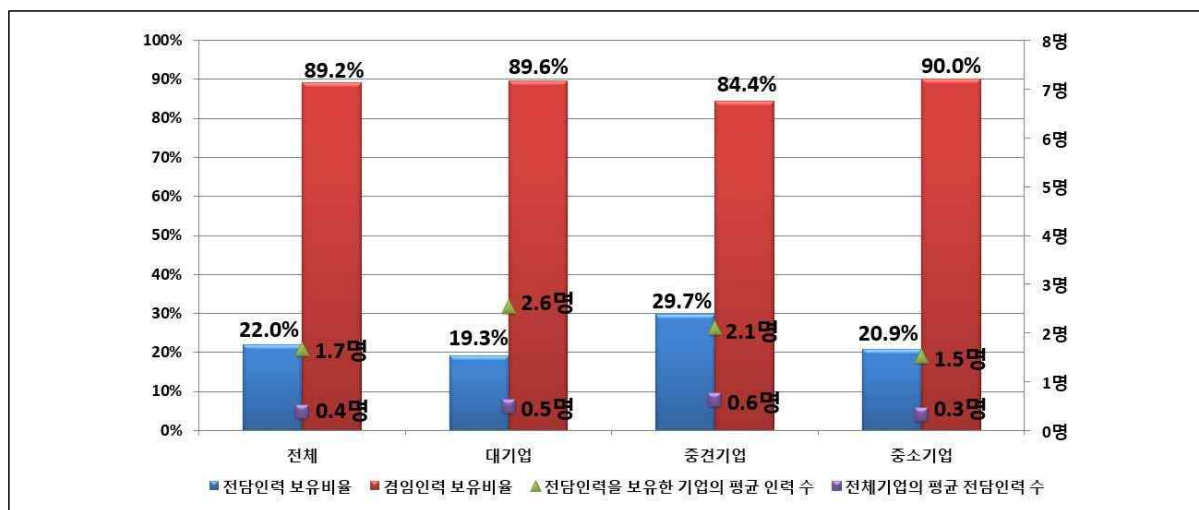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

○ 지식재산 인력 보유 비율

-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22.0%로 전년 대비 1.4%p 증가

※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기업 비율: 20.6%('15년) → 22.0%('16년)



< 지식재산 인력 보유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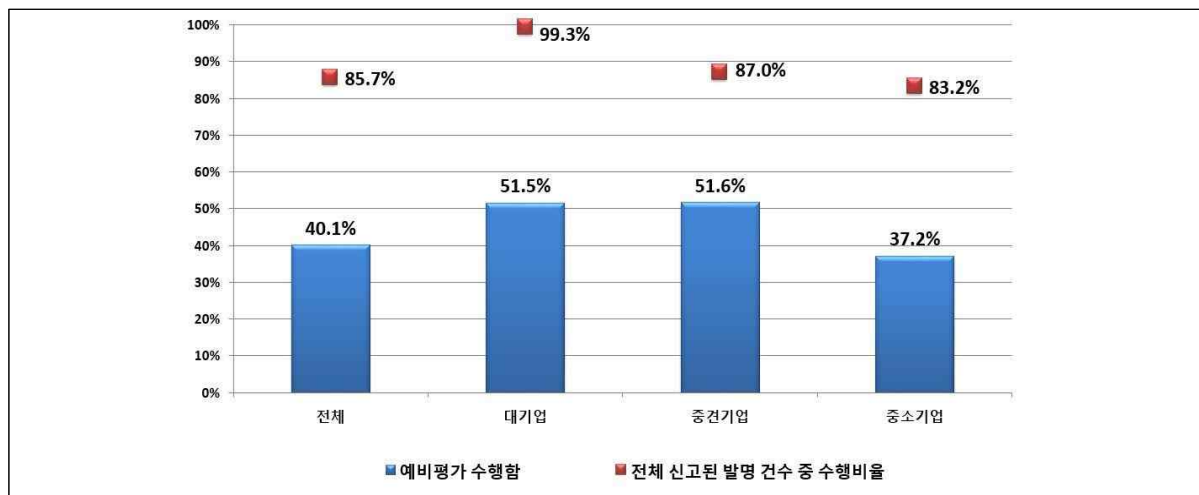
□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활동 현황

○ 예비평가 수행

-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40.1%로 전년 대비 0.8%p 증가

※ 예비평가 수행 비율: 39.3%('15년) → 40.1%('16년)

* 제출된 발명신고서에 대하여 직무발명위원회 등을 통하여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심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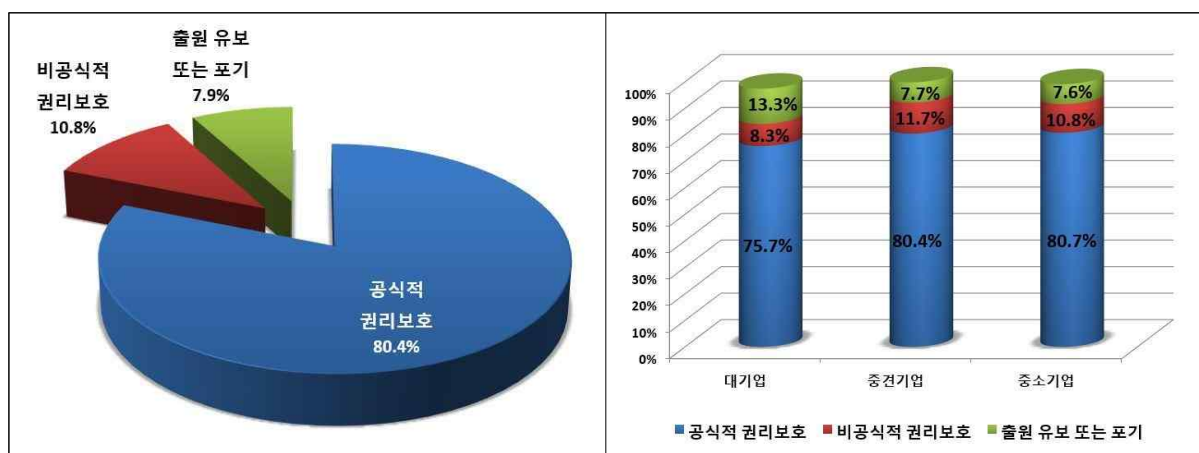


< 예비평가 수행 비율 >

○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

- 산업재산권 출원 등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80.4%로 전년 대비 9.2%p 증가

※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71.2%('15년) → 80.4%('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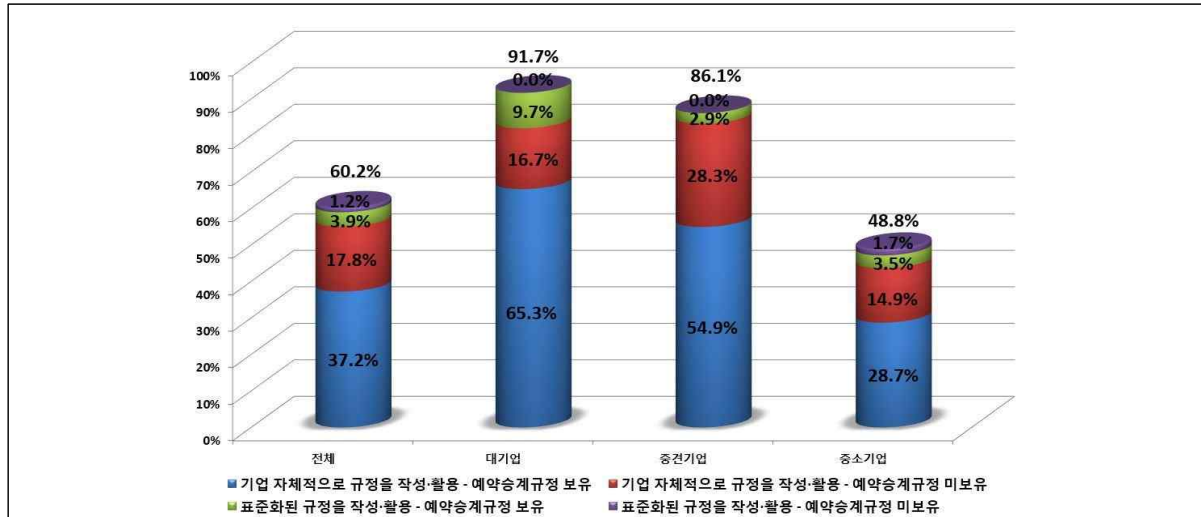
<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현황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60.2%로 전년 대비 4.6%p 증가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비율: 55.6%(’15년) → 60.2%(’16년)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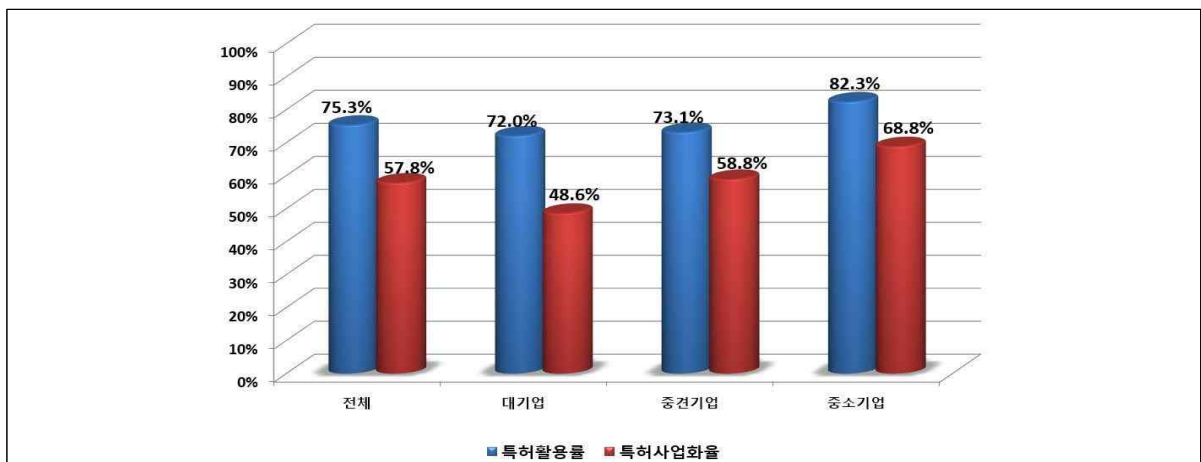
□ 기업의 지식재산의 활용 현황

○ 특허의 총 보유 대비 활용 비율

- 기업이 보유한 총 특허권 중 활용된 비율은 75.3%로 전년 대비 2.1%p 감소, 사업화 비율은 57.8%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조사

※ 특허 활용 비율: 77.4%(’15년) → 75.3%(’16년)

※ 사업화 비율: 57.3%(’15년) → 57.8%(’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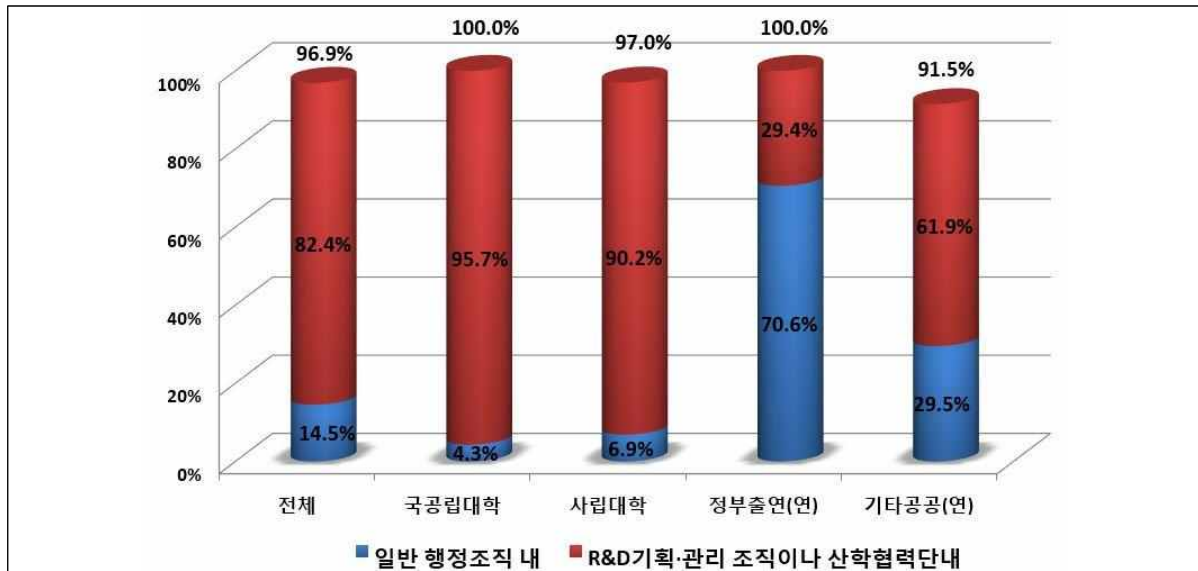
< 특허의 활용 비율 및 사업화 비율 >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96.9%로 전년대비 0.8%p 증가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기관 비율: 96.1%('15년) → 96.9%('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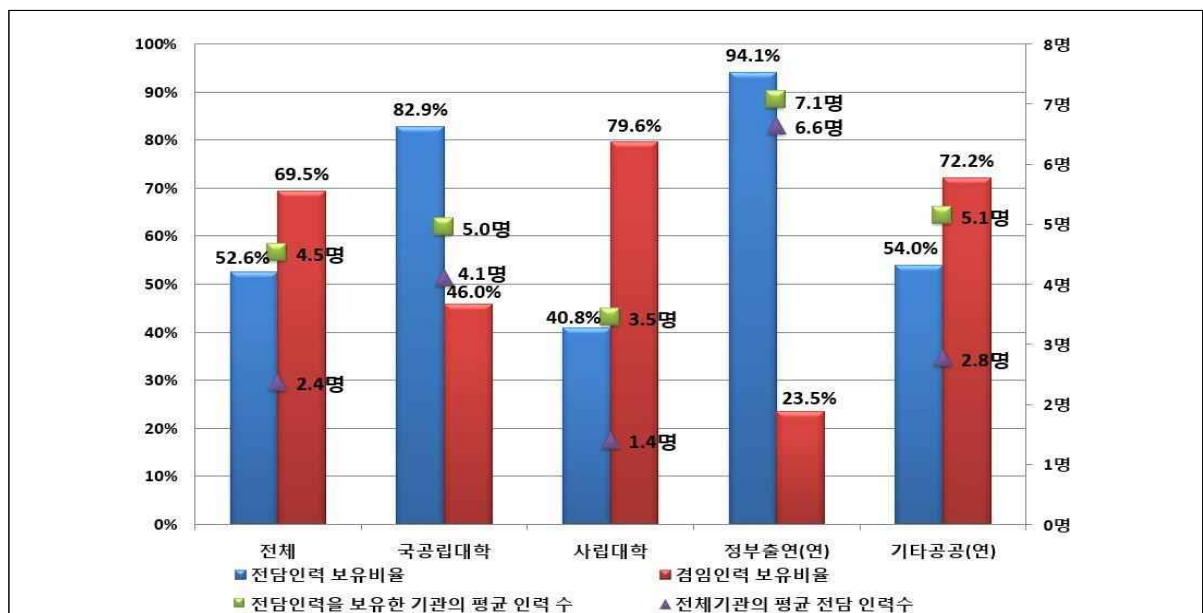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

○ 지식재산 인력 보유 비율

-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관의 비율은 52.6%로 전년 대비 1.4%p 증가

※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기관 비율: 51.2%('15년) → 52.6%('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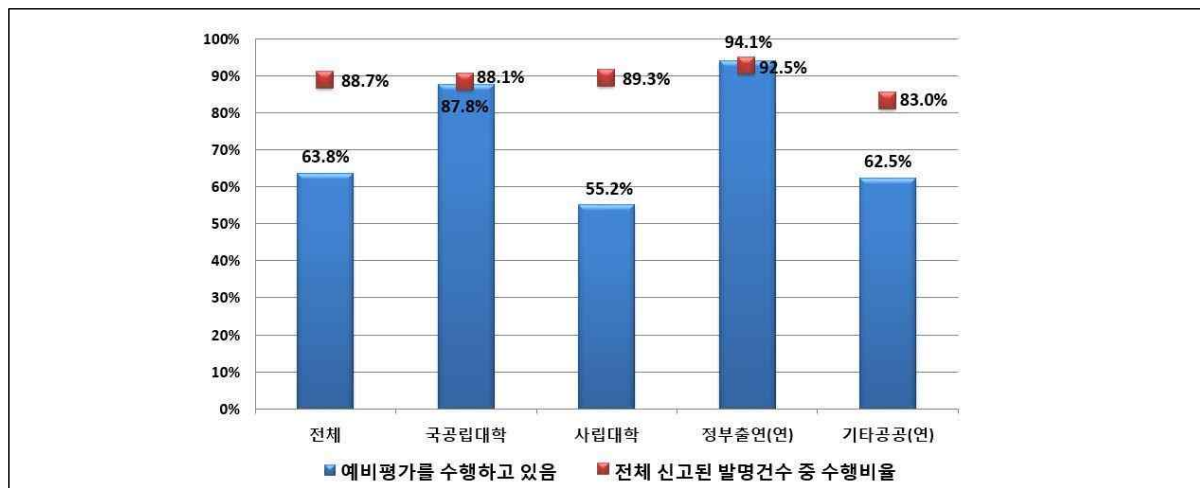
< 지식재산 인력 보유 비율 >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보호 활동 현황

○ 예비평가 수행

-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은 63.8%로 전년 대비 2.0%p 증가

※ 예비평가 수행 비율: 61.8%('15년) → 63.8%('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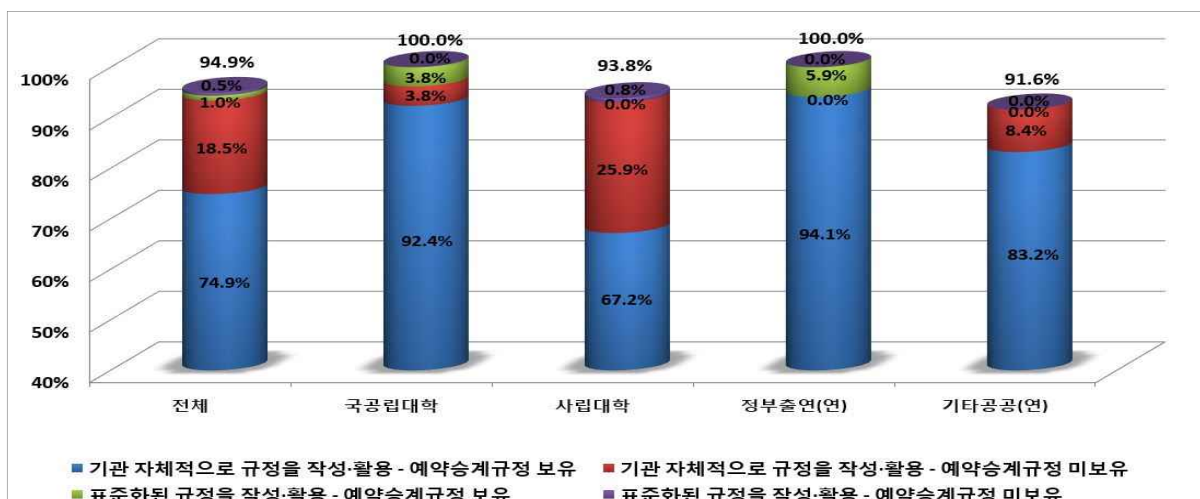
< 예비평가 수행 비율 >

□ 대학·공공(연)의 직무발명제도 현황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비율은 94.9%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비율: 94.8%('15년) → 94.9%('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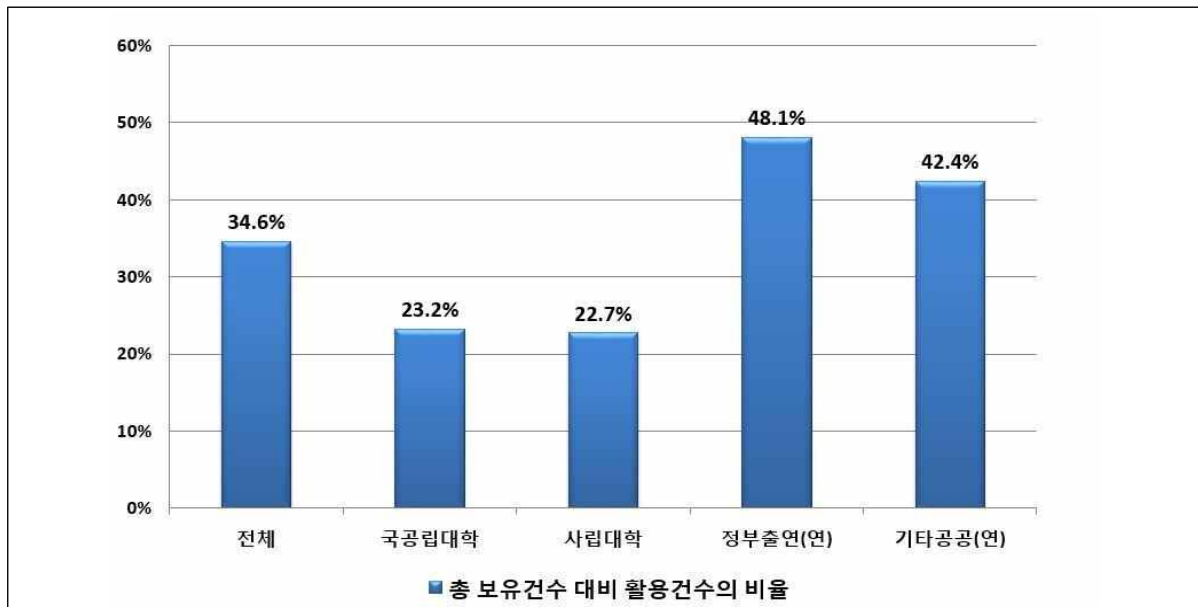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비율 >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의 활용 현황

○ 특허의 총 보유 대비 활용 비율

- 기관이 보유한 총 특허권 중 활용된 비율은 34.6%로 전년 대비 1.7%p 증가한 것으로 조사

※ 특허 활용 비율: 32.9%('15년) → 34.6%('16년)



< 특허권의 활용 비율 >